

손흥민, 축구 인생을 바꿀 2018년

1992년생, 만 26세의 그리 많지 않은 나이로 한국 축구의 중심으로 우뚝 선 손흥민(트트넵에게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어느 해보다 중요하게 다가온다. '동란'을 위해 전 세계 축구 도사들이 모여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입지를 다져야 하고, 생애 두 번째 월드컵을 통해 4년 전 아픔을 씻어야 한다. 가을에는 향후 선수 생활의 향방을 좌우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의 인생을 건 도전이 막을 올렸다.

EPL서 최근 4경기 연속골 등 9골 '순항' 아시안게임, 사실상 마지막 '병역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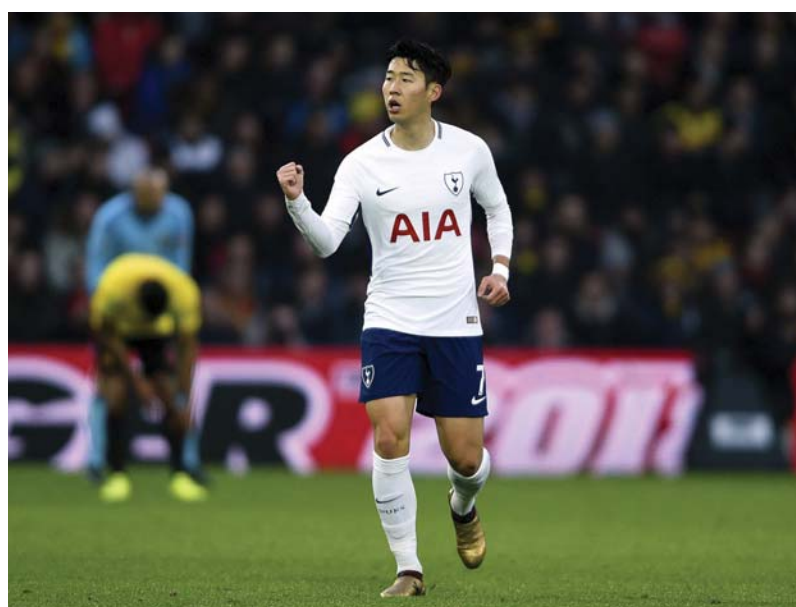
△첫 번째 과제는 EPL 정복

2015년 8월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EPL로 향한 손흥민은 첫 시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각종 대회에서 8골을 넣었지만 분데스리가를 휘저던 모습만큼은 아니었다. 2016~2017시즌을 앞두고는 이적설에 휘말렸다.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그의 진가를 알아본 볼프스부르크(독일)는 꽤나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누군가 자신을 원한다는 것은 물론 기쁜 일이었다. 손흥민은 고심 끝에 더 큰 물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페널티킥 없이 21골을 몰아치며 EPL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EPL 이달의 선수상이라는 달콤한 보너스까지 얻었다. 우려를 딛고 연착륙에 성공한 손흥민은 2017~2018시즌 입지 다지기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순조롭다. 지난해 6월 카타르와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치르던 중 오른쪽 골결상을 당해 출발은 늦었지만 복귀 후 언제 다쳐나서 못 공격 포인트를 쓸 아꼈다. 4경기 연속골을 비롯해 9골을 터뜨리며 순항 중이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의 유럽 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홈과 원정 구분 없이 골 맛을 봤고, 10월23일 라이벌 리버풀을 쓰러뜨릴 때는 썩어빠진 터프했다. 미우리시오 포체티노(46)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은 많은 골을 넣고 있고 훈련과 경기에서 일관

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우리 팀 모두가 손흥민을 사랑한다. 플레이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 또한 그렇다"고 칭찬했다.

△브라질에서 눈물, 러시아에서?

시즌을 마치면 '꿈의 무대'인 월드컵으로 향한다. 러시아월드컵은 6월14일부터 7월15일까지 열린다. 손흥민에게는 두 번째 도전이다. 첫 번째는 아쉽게도 가락했다. 2014 브라질월드컵에 나섰던 손흥민은 골 맛을 보긴 했지만 팀의 추락은 막지 못했다.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0-1로 패해 16강 탈락이 확정된 뒤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여전히 축구팬들의 뇌리에 남아있다. 한국은 러시아월드컵에서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F조에 속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모두 우리보다 한 수 위의 팀들이다. 일각에서는 1998년 프랑스월드컵 조 편성(멕시코·네덜란드·벨기에)을 연상케 할 정도로 뻔뻔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예년에 비해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손흥민이 해준다면이라는 심리가 깔려있는 것도 사실이다. 브라질 대회에 비해 기량이 한층 성숙해진 손흥민이 중심을 잡아준다면 1승, 1무, 1패도 손흥민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유력매체 뉴욕 타임스는 최근 월드컵 진출국의 전력을 소개하며 "(손흥민은) 여러 목적으로 쓰이는 토트넘 포워드"



리면서 "네다수 팬들이 (월드컵을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EPL 무대를 누비며 이미 스타로 떠올랐지만 전 세계 축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러시아월드컵을 통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손흥민은 두 번째 도전을 잔뜩 버리고 있다. 그는 "난 아직도 브라질의 눈물을 기억한다. 어느 팀이든 우리보다 강팀이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은 둥글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2014년 브라질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우리 선수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인과 축구팬들이 하나가 돼서 후회하지 않는 월드컵을 만들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어쩌면 '더 중요한' 아시안 게임

러시아월드컵이 끝나도 설 틈은 많지 않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8월18일~9월2일)이 버리고 있다. 축구라는 종목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아시안게임은 그리 큰 비중을 갖는 대회는 아니다. 23세 이하 선수들과 나이에 관계없는 3명의 와일드카드가 나서는 대회의 성격상 다른 국가들의 경우 유망주들의 국제 대회 경험 쌓기 정도로 규정한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무대다. 월드컵을 따면 선수 생활의

최대 걸림돌인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손흥민에게는 월드컵보다도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동안 손흥민이 병역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때는 대한 축구협회가 손흥민의 발탁을 추진했지만 당시 소속팀이었던 바이엘 레버쿠젠(독일)이 차출을 거부했다. 아시안게임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승인한 A매치가 아니기에 차출의 강제성이 없다. 동료들이 28년 만의 월드컵로 환호할 때 손흥민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토트넘의 동의를 얻어 와일드카드로 합류했지만 팀이 8강에서 도전을 멈췄다.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은 손흥민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얻지 못하면 2년 뒤 도쿄올림픽으로 눈을 돌려야하는데 메달권 진입 확률도 아시안게임에 비해 떨어질 뿐 아니라, 그 전에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만일 자카르타에서 금메달 사냥에 실패하면 손흥민은 축구 선수로서의 최정성기를 군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 금메달로 출구본한 신분이 되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이미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정상급 선수로 우뚝 선만큼 몸값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다.

뉴스스



(왼쪽부터) 김보름, 이상화, 박승희.

“평창 동계올림픽, 이상화 윤성빈銀·한국 종합 6위”

미국 데이터 전문업체, 최민정·심석희·김보름·이승훈 금 전망

한국이 인방에서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6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데이터 전문업체 '그레이스노트'는 개막을 31일 앞둔 평창 올림픽 종목별 메달 전망을 밝혔다. 한국이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를 따 종합 6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금메달 7개 중 5개가 쇼트트랙에서 나올 것이라고 봤다. 여자 대표팀의 '쌍두마차' 최민정(20·성남시청)과 심석희(21·한국체대)가 각각 여자 1000m와 1500m에서 금메달 목에 걸고, 여자 대표팀이 3000m 계주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자 1000m 서이라(26·화성시청), 남자 1500m 신다운(25·서울시청)의 금메달도 예상했다. 하지만 신다운은 국내 대표 선발전에 평창올림픽 태극마크를 다는 데 실패했다. 그레이스노트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금메달 후보에 신다운의 이름을 올려 자료의 신빙성에 물음표가 달린다. 이승훈(30·대한항공)과 김보름(25·강원도청)은 매스타트 강자답게 남녀 매스타트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전망했다. 최민정은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심석희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빙속역제 이상화(29·스포츠타)의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은메달 획득 전망도 눈에 띈다. 2017~2018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여자 500m에서 속적 고다이로 나오(32·일본)의 벽을 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스텔레톤 황제' 대관식을 노리는 윤성빈(24·강원도청)도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로 전망됐다. 2017~2018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1~6

차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따며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마르틴스 두쿠르스(34·라트비아)를 넘어섰지만, 이 업체는 평창올림픽에서 두쿠르스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레이스노트는 비정기적으로 메달 예상을 업데이트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이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 종합 6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당시 금메달 후보였던 이상화는 은메달로 밀렸고, 은메달로 예상했던 김보름은 금메달 후보가 됐다. 윤성빈은 동메달 예상에서 은메달로 바뀌었다. 이러한 예상은 한국의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국은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독일이 금메달 14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4개로 종합 1위, 노르웨이와 미국이 각각 금메달 11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3개로 2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이 업체의 예상이다. 프랑스(금 10개·은 8개·동 6개), 미국(금 9개·은 11개·동 9개), 캐나다(금 7개·은 12개·동 14개)가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로 9위, 일본은 금메달 4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로 10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인기 종목인 남자 아이스하키에서는 캐나다의 우승을 예상했고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는 일본의 간판 스타 히로 유즈루(24)의 금메달을 점쳤다. '스키 황제' 마르셀 히르셔(29·오스트리아)는 알파인 스키 대회전과 회전 슈퍼대회전에서 금메달을 휩쓸 3관왕 후보로 꼽혔다. 여자 알파인 스키의 강자 미셸라 시프린(23·미국)은 회전에서만 금메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차준환, 4대륙선수권 건너뛰다

12일 캐나다서 막바지 훈련...평창 올림픽에 올인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차준환(17·휘문고)이 무리하지 않고 올림픽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오는 2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막하는 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를 건너뛰고 '베이스 캠프' 격인 캐나다에서 회복과 막바지 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차준환 측 관계자는 8일 "차준환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 올림픽 이전에 실전을 치르면 올림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캐나다에서 회복 겸 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스케이트 부츠에 불편을 느낀 차준환은 여러 차례 부츠 교체 후에도 문제를 좀처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쿼드러플 살포를 제외한 4회전 점프를 하나 더 장착하려다 오른 발

목과 왼 고관절에 부상을 입었다. 세 차례에 걸쳐 치러진 평창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 2차 선발전에서 이준형(22·단국대)에 뒤져 평창행이 무산되는 듯 했다. 차준환은 지난 7일 목동실내빙상장에서 막을 내린 3차 선발전에서 종전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을 합쳐 세 차례 시도하던 4회전 점프를 프리스케이팅 1번으로 줄이는 승부수를 띄웠다. 그 결과 들린 연기를 펼친 차준환은 27.54점의 점수차를 뒤집는 대역전극을 펼쳐 평창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4대륙선수권대회는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다.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 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평창올림픽 직전 실전 감각을 조율하기는 좋은 무대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몸 상태 탓에 컨디션 조율을 우선순위에 놓은 차준환은 캐나다에서 컨디션을 조율한 뒤 분위기에 나서기로 했다. 차준환은 평창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을 앞둔 2월 초에 나 귀국할 전망이다.

뉴스스



전남드래곤즈, 박광일-장대희 영입

U-20 대표 출신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는 U-20 대표 출신의 박광일 선수(28)와 장대희 선수(25)를 영입했다. U-20, U-23 대표 출신인 박광일 선수는 연세대를 거쳐 K리그 마쓰모토 야마가에 입단하여, 인도 슈퍼리그도 경험해본 해외경험이 풍부한 우측 풀백이다. 기술과 스피드가 뛰어나며, 현대 축구의 기본인 패스축구와 빌드업 능력을 한껏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이자 U-20 대표 출신인 장대희 선수는 연령별 대표를 두루 거쳤으며,

187cm의 큰 신장에도 매우 민첩한 골키퍼이다. 2015년 울산에 입단하여 김승규, 김용래는 벽에 막혀 통산 1군 출전 경기수는 6경기 밖에 안 되지만 연령별 대표를 거친 선수가기에 장래가 촉망받는 차세대 골키퍼이다. 박광일 선수는 "K리그에서는 첫 발을 내딛는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에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장대희 선수도 "이제는 경기장에서 내 실력을 보여줘 전남의 철벽 거미손으로 성장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MLB닷컴 "추신수, 개막전 3번 칠 듯"

외야수 아닌 지명타자

그러나 현 전력상으로 올 시즌 개막전부터 중심타선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2016년 계속되는 부상 속에 48경기 출전에 그친 추신수는 지난해 14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1(544타수 142안타) 22홈런 78타점 12도루 96득점에 출루율 0.357, 장타율 0.423을 기록했다. MLB닷컴은 "포면적으로는 스피드, 파워와 경험, 젊음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난 시즌 텍사스는 아메리칸리그 홈런 3위, 도루 2위에 올랐다"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추신수와 벨트레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의문점"으로 짚기도 했다. 또 "텍사스 타선은 삼진과 볼넷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지난해 텍사스의 팀 삼진은 아메리칸리그 2위였던 반면 팀 볼넷은 7위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전력상으로 올 시즌 개막전부터 중심타선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2016년 계속되는 부상 속에 48경기 출전에 그친 추신수는 지난해 14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1(544타수 142안타) 22홈런 78타점 12도루 96득점에 출루율 0.357, 장타율 0.423을 기록했다. MLB닷컴은 "포면적으로는 스피드, 파워와 경험, 젊음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난 시즌 텍사스는 아메리칸리그 홈런 3위, 도루 2위에 올랐다"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추신수와 벨트레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의문점"으로 짚기도 했다. 또 "텍사스 타선은 삼진과 볼넷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지난해 텍사스의 팀 삼진은 아메리칸리그 2위였던 반면 팀 볼넷은 7위에 그쳤다"고 강조했다.